불국사 다보탑 훼손 심각

"석재 부식 겨울철 결빙 때 파손 우려"

"중앙부 8각 난간서 빗물 침투 가능성"

김수진 교수 주장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국보 제20호)이 중병을 앓고 있다. 석재는 검게 부식되고 있고, 그 강도는 손톱에도 긁힐 정도로 약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11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김수진(사진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 문화재위원) 교수의 다보탑 조사 보고서인 '불국사 다보탑의 훼손현황과 보존대책'에서 밝혀졌다.

김 교수가 10여 개월 동안 현장에서 다보탑의 훼손 실태를 정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석재에 상당량의 수분이 침투해 겨울철 결빙작용으로 파손될 위험에 처해 있고, 석재 표면에서는 화강암 훼손의 주범인 염분과 철분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석재의 접합 부분에서는 이끼와 풀이 자라고, 내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두 차례의 해체 복원 공사로 석재의 접합 부분이 느슨해진 다보탑 중앙부의 8각 난간에서는 탑의 내부에까지 빗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물길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지면부터 8각 난간까지 각 부위를 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표면은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 부식되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 표피가 떨어져 나갔다.

김 교수는 "불국사는 동해안과 가까운 곳에 있어 대기 중의 염분 농도가 높은 탓에, 다보탑의 훼손 속도는 다른 곳의 석조물 훼손의 10배에 달한다"며 "종합적인 정밀진단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다보탑의 훼손상태에 대한 정밀한 환경광물학적 진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조물의 훼손은 어디까지나 환경요인에 의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 교수는 "부식이 심한 8각 난간의 빗물 누수 원인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빗물이 8각 난간 부분의 강도나 접합 정도가 약해, 석재 틈을 따라 아래쪽과 내부로 흐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교수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는 방습처리며, 다보탑을 덮고 있는 오염물질과 이끼류 등을 세척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지정 유형문화재 가운데 석조문화재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한 김 교수는 "비단 다보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석조문화재들이 관리 소홀과 자연적인 풍화로 훼손되고 있다"며 "석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석조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부도를 포함한 석탑 36.5%, 마애불을 포함한 석불 26.4%, 비석 22.5% 등이 있다. 이 중 국보의 53.8%, 보물의 42.7%, 중요문화재의 38.9%를 점유하고 있는 석탑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의 8각 난간 부분. 석재의 대부분이 검게 부식되고 있다.

"禪 경제학 생산과 분배 이상적 조화"

홍성민 박사 주장

한 경제학자가 무절제한 소비문화, 이윤만을 좇는 시장경제, 누적되는 빈부격차 등 현대 경제의 난제를 선(禪)의 가르침으로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화제의 인물은 18일 한국선학회 월례 발표회에서 '선과 경제'를 발표한 홍성민(사진 · 종합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박사.

홍 박사는 우선 선사상 가운데 공심(空心)과 불교에서 수행의 요체로 삼는 육바라밀에 주목했다. 공심은 결국 종교와 인간 생활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영역에서 즉, 인간 생활 속에서 선을 추구하고 선 속에서 인간 생활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이기 때문이다.

홍 박사에 따르면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 · 인욕 · 지계 · 보시 등 4바라밀은 재가의 몫이고, 선정과 지혜는 승가의 몫이다. 홍 박사는 "여기에서 4바라밀은 생산, 유통, 소비, 분배 등 기본 경제활동에 해당되며, 선정과 지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이윤보다는 윤리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선(禪) 경제학'이라고 말했다. 선 경제학이란 부의 축적 자체를 생활 영위의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수단을 선택하고 또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홍박사는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인 경제 활동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선과 경제는 인간 생활 속에서 출발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야의 지혜에 도달한다는 공통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박사는 "4바라밀 중 현대 경제활동의 분배나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는 보시에서 '불교은행'의 모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교은행은 보시의 재원을 금융화 하는 것인데, 이 재원은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는 윤리적인 동기를 갖춘 투자기법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불교은행을 서민은행으로 이용한다면 빈민구제의 개념을 넘어 하화중생이라는 부처님의 참 뜻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자카트(Zakhat) 은행의 경우, 약 800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무이자은행으로 이슬람교도의 생활 안정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㉘ 기성의 동화사·은해사 편액

◇대구 동화사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 편액.

◇영천 은해사 '극락전' 편액.

기성 쾌선(箕城 快善 · 1693~1764)은 경상북도 칠곡 출생으로, 13세 되던 해 칠곡 송림사에 들어가 14세에 민식(敏湜)을 스승으로 득도하였으며, 16세에 서귀(西歸)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대조(大照)와 홍제(弘濟)에게서 교학을 배워 25세에 홍제의 법을 이었다. 이후 그는 수년간 각처의 명산과 대찰을 돌며 수행하다가 다시 팔공산으로 돌아가 기기암(寄寄庵)을 짓고 정진하였다. 저술로는 정토신앙의 선(禪)적 수용을 설한 '청택법보은문(請擇法報恩文)'과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등이 있다.

칠곡 송림사에 있는 기성의 비문에 의하면, 그는 글씨에 능해 많은 사찰에 글씨를 남겼고, 준건(遵健)한 서체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현재 사찰의 전각에 걸려 있는 그의 글씨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 〈봉서루〉, 〈팔공산동화사봉황문〉, 영천 은해사 〈극락전〉,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성주 선석사 〈대웅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창원 성주사 〈대웅전〉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대웅전〉 편액은 모두 같은 글씨로, 대구 동화사의 것을 비슷한 시기에 번각한 것이다.

대구 동화사 봉황문에 걸린 〈팔공산동화사봉황문〉 편액에는 '갑자춘성(甲子春成)'이라는 관지만 있을 뿐 도서는 없다. 1725년부터 1732년까지 절을 중창하면서 이에 대한 기록을 모아 편찬한 '팔공산동화사사적'에 기성의 서문이 있는데, 이 편액은 팔공산에 머물며 절의 중창에 관여했던 기성이 1744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가로획을 굵고 세로획을 가늘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무겁게 쓰는 동국진체(東國眞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글씨이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편액은 가로 두 개의 폭판을 3개의 거멀못으로 앞에서 고정 하였다. 이 편액 역시 '성상이십이년을축육월일서(聖上二十二年 乙丑六月日書)'라는 관지만이 있는데, 기기암에 머물던 기성이 1745년에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불보살전의 편액은 조성 연대가 오랜 것일수록 액판의 전면에 서명하거나 도서를 찍는 예는 드물며, 필요한 경우 그 후면에 묵서나, 음각으로 표시하였다. 편액의 글씨는 결자(結字)가 근정(謹正)하며, 운필(運筆)이 수윤(秀潤)한 해서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봉 황 문
동국진체 특징 드러나

극 락 전
운필 수윤한 해서체

"개성공단 예정지-경의선 주변 先 문화재조사 後 개발"

문화유산 대책협 주장

현대아산(주)이 추진중인 북한 개성산업공단 조성과 관련해 이 일대의 문화재 사전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내 역사 · 고고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

역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회학회 등 15개 학회로 구성된 개성지역 문화유산 대책협의회는 10일 '개성 공단 예정지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 방안'을 주제로 학술보고회를 열고, "공단 조성에 앞서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규모는 개성시 판문군 평화리 일대 700만평. 국내 학자들은 "평화리 일대는 고려의 유적은 물론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유적과 조선시대의 유적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진홍섭(前 국립박물관 개성분관장) 박사는 "지하에 숨겨져 있는 유구나 유물은 우열을 불문하고 역사 바로 그 자체"라며 "개성의 지하유구에 대한 학술적 발굴조사가 한번도 없었던 만큼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진(숙명여대) 교수는 "개발예정지에서 경종릉, 충혜왕릉 등 왕릉 및 고분군과 홍왕사지, 천수사지, 불임사지, 지궐사지 등 절터는 수많은 유물들이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요 유적지"라고 강조했다.

장호수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의선 철도와 간선 도로망"이라며 "개성 나성 안의 동서로 가르고 지나가는 철도와 도로는 개성의 지맥을 자르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따라 외곽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부처님은 성차별 안했다"

하상의 교수 '불교와 페미니즘'

"남녀와 성속(聖俗)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참 자아를 찾아야 한다." 하상의(영산원불교대학) 교수가 11일 불교학연구회의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고, 남성과 여성을 상하로 보는 기성 종단을 비판해 주목된다.

하 교수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남성중심적 편견은 팔경법, 여인오장설, 부처님 32상설 등에서 비롯됐고, 나아가 불교계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즉 '여성혐오론'까지도 조장했다.

논문에서 "부처님은 성차별주의자인가?"라고 자문한 하 교수는 "최근 들어 젊은 여성불자들이 경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찾아내고 있다"며 "기성 종단에서는 페미니즘과 불교의 조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교단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불교계 스스로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용적 가치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에 따르면 여성 시각에서 경전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테리가다(Therigatha)〉와 같이 여성도 깨달음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초기 경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선전연구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제4차 선전(禪典)연구발표회를 25일 오후 1시 법련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보조의 진심직설은 과연 친저(親著)인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으로 있어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연식(서울대 사학과 강사) 박사가 '보조의 친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김방룡(영산대) 교수가 '보조의 친저임이 분명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전개할 예정이다. (02)733-5315

회당학회 추계학술대회

회당학회는 '21세기 한국불교의 방향'을 주제로 25일 오전 10시 서울 불교문화진흥원 3층 대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혜정 정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에는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체성'(이봉춘), '현대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윤원철), '불교계 다종단의 출현과 그 역할'(법현 스님), '진각종 교화이념의 사회성'(경정 정사) 등이 발표된다. (02)913-0753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십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춘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해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